

## 책의 진화와 바람직한 독서 패러다임

지난 6월 2일 서울국제도서전과 함께 ‘책의 진화와 바람직한 독서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우리 시대 책과 독서의 의미’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부길만 교수(동원대)가 ‘책의 본질과 진화 양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노병성 교수(협성대)가 ‘바람직한 독서 패러다임의 모색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김선남 교수(원광대)가 ‘책과 도서,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중 문용린 교수의 기조강연과 부길만 교수의 ‘책의 본질과 진화 양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 기조강연

## 우리 시대 책과 독서의 의미

문용린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전 교육부 장관)

생각하는 것은 버릇이다. 깊고 진지한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을 억제하고, 정답을 찾아내고, 발명을 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역사상의 위인들을 살펴봐도 ‘생각하는 힘’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생각이 깊다’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양육과정’과 ‘독서습관’으로 길러지는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 습관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 양육 과정에서 살펴보면, 어린시절부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추리를 유도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서습관을 보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책을 읽는

과정은 하나의 넓고 진지한 생활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책읽기는 두뇌발달을 돕는다

책읽기가 생각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까.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육심리학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뇌 생리학적 관점이다.

교육심리학자 G.Gardner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삼라만상으로부터 자신의 두뇌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다시말해 사람들은 삼라만상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해석하고 의미도 부여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궤적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뇌생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뇌가 정신, 감각, 운동능력



을 권장하는데, 이런 뇌를 발달시키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앞서 말한 세 가지 능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과학자들은 책읽기를 꼽는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전두엽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두뇌가 크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게임은 뇌를 전혀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독서환경 조성에 온 세상이 바쁘다

책읽기의 중요성은 동서고금 어디에서건 나타난다. 당나라 시대 유명한 시인 두보는 '남아수독 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 사람은 필히 다섯 마차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한다)' 라고 하여 책읽기를 강조했고, 안중근 의사는 '일일불독서 구중생형극(一日不讀書 口中生荊棘,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생긴다)' 라는 말로 한민족의 젊은이들에게 책읽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책읽기는 오늘날에 중요한 관심사이다. 많은 나라들이 젊은이들, 특히 유, 초, 중, 고 및 대학에서의 독서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독서수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

### 독서확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가도, 학교도, 출판업체도, 민간 사회단체도 독서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단체와 교수, 교사 단체가 있고, 매년 마다 굵직한 포상도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서율이 낮은 나라로 손꼽힌다. 이유는 무엇일까?

책읽기는 두뇌를 활성화시키며, 생각을 깊게 하고 창의적이 되며, 남에 대한 감성적 배려가 성숙해진다. 그리고 이런 독서는 가장 손쉽고 편리하며,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돈이 적게 드는 교육활동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결국 사물과 인간사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다. 또한 수능시험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국가가 젊은 세대에 대한 독서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책을 읽는가가

국민들의 인생을 다르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와 독서 전문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젊은이들의 독서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의 본질과 심각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독서가 지식정보화 시대의 해독의 묘약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질 필요도 있다.

##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

21세기에는 지식, 정보화의 흐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이 휴유증 또한 엄청날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인간사이, 집단사이, 국가사이, 세대사이를 엄청나게 균열시킬 것이며, 넘쳐 나는 정보에 판단능력

을 잃고 와해되는 개인과 집단이 생겨날 것이다. 무차별한 정보유출과 악용으로 피해 입는 개인과 회사가 속출할 것이다. 벌써 그런 조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의 해악에 대한 해독제가 바로 독서, 즉 책 읽기라고 할 수 있다. 독서가 21세기 우리 세계문명이 배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독의 묘약이라는 점에 부모를 포함한 이 사회전체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 독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보의 홍수 속에 익사하지 않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며, 정보의 바다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고 정제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 주제발표1

# 책의 본질과 진화 양상에 따른 문제점

부길만 · 동원대 광고편집과 교수

원래 책이란 말이 문자로 변형되어 쓰인 것이다. 문자에는 그림이나 상징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고대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로고스'를 담았다. 로고스는 그리스철학자들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사물의 근거, 척도, 사고능력, 이성, 인간정신의 뜻으로 규정된다. 지금까지 책은 모든 진보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며, 인간 교육과 인류의 문화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 책의 진화

책의 진화라 하지만, 책의 본질적 측면에서 말하는 진화는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인간 정신의 표현, 진리의 구현, 문화의 힘을 발현하는 매체의 본질로서의 책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책의

모양, 형태, 제작방식이 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모양은 재료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초창기에는 동물의 뼈에 기록을 했고, 가죽, 대나무에 쓰이던 것이 종이로 발전해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제작방식은 과거 필사본이 대부분이었으나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본격적인 활판인쇄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전자출판, 온라인형 출판, 네트워크형 출판, 화면책 출판, 전자책 출판 등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정보양식은 여러 가지 범주에서 이전과 다른 특징들을 보여준다. 즉, 정보 생산자, 의사소통수단의 유형, 정보의 의미 생성 방식, 그리고 이용자와 미디어의 인터페이스라는 새로운 특징을 담고 있고, 이것은 이전의 인쇄미디어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표1〉 인쇄미디어의 정보양식과 디지털 정보양식의 비교

구분	인쇄미디어의 정보양식	디지털 정보양식
정보 생산자	분업적 텍스트 생산자	소수의 생산/이용자
의사소통 유형	종이책, 종이잡지	CD-ROM, 인터넷
미디어	일방적인 정보전달	쌍방향적 인터페이스
접근형태	반참여적 정보이용 정태적	참여적 정보이용 역동적

하이퍼텍스트는 링크와 노드로 이루어져,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쪽의 크기가 같은 책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 변화무쌍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노드들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 독서방식의 변화

읽기는 진화의 산물이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고 유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대사회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권력자에 속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독서라는 것이 남이 낭독하는 것을 듣는 행위였다. 그러던 것이 도시의 성립과 학교의 부활로 인해서 지금의 독서형태가 마련되었다. 최근 하이퍼텍스트의 등장은 우리의 독서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복사하고 자르고 편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한 문학, 이른바 하이퍼문학은 그 독서 방식도 다음과 같이 독특하게 전개된다.

첫째, 독자는 책의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앵커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링크를 따라가며 글을 읽는다. 둘째, 하이퍼문학의 독자에게는 선택권과 동시에 자율성이 보장된다. 셋째, 디지털 양방향성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대한 관조적 자세이기보다는 참여를 요구한다. 넷째, 시각, 청각 등을 동원하는 하이퍼텍스트 읽기는 주체에 따라 이야기 구성이 상반되는 다양한 내용 전개가 가능하게 된다. 다섯째, 하이퍼 문학읽기는 고전문학(판소리, 탈춤) 읽기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독자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읽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달라진다. 여섯째, 하이퍼문학은 독자에게 인내심을 요구한다. 하이퍼텍스트 읽기에서는 나름의 미로 지도를 가지고 텍스트를 탐험하는 것이기에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하이퍼문학의 작가는 더 이상 견고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 진화양상에 따른 문제점

책의 진화양상에 따라 장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크게 글쓰기 능력의 약화, 독서시간의 감소, 콘텐츠의 부족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 능력의 약화는 책의 진화과정에서 사고가 파편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쇄매체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단편마다 연속적인 전개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터넷 글쓰기는 맞춤법 문제와 체계성과 논리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서시간의 감소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 도서의 저작권 수출은 한 해에 500건을 헤아리는 반면, 번역물은 전체 발행종수의 30퍼센트에까지 이르고 있다. 베스트셀러 서적 역시 외국 작가들의 책이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자신만의 문화콘텐츠 창조와 개발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콘텐츠 창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2〉 인쇄책과 하이퍼텍스트의 비교

구분	인쇄책	하이퍼텍스트
출발점	연상을 연결시키는 작업	연상 자체가 출발점
구성	선형적이고 순차적인 형태 정해진 구성 : 장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 또는 클라이맥스와 결론 등을 가짐 시작과 끝을 두께를 통해 알려줌	비선형적 일시적 무한한 텍스트
목적	위계의 창조 - 저자의 권위 완결성, 고정성의 가치 창조	업데이트 가능 : 저자와 독자의 결합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장점	이동성/단순성/가독성/ 견고성/개인화/저비용	열림성, 상호 텍스트 구성, 각주의 일반된 형태, 변형, 가공, 복사, 제거 가능
단점	단형성, 상호 텍스트 구성 불가능, 각주만이 닫힘성 극복	기술적 요소(네트워크 필요)